

Luke 7:36~50 Loving much vs Loving little. <눅 7:36~50> 헌신된 사랑 vs 형식적인 사랑.

If we raise the question of... "what is the sole purpose of Christian life?" God's Word tells us that, it is to live a life of love.

If fact, when we look at Mark 12:30~31, Jesus clearly tells us that, loving God and loving our neighbours is the greatest commandment. This means we are to devote our life, involving God with all our heart and nd, and loving and serving our neighbours. And when we also read from 1 John 4:11~12, John tells us that, "if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and as we love one another, he further says in verse 12 that, it is a way of testifying of God's love. So, "love" (loving God and our neighbours) is vital to our Christian life.

Then, the next important question is, what does it mean to love God, and how can we love him?

And in answer to this question, if we carefully read through today's passage, we see a lady who dearly loved our Lord, Jesus. And we also see the reason why she so loved Jesus.

So, based on today's passage, we will explore what it means to love Jesus, and how we can love him.

• One woman approaching Jesus, and her humble dedication.

To briefly go through the context of today's passage, we see a Pharisee (whose name is Simon) invite Jesus into his home to have a meal with him. And the impression of the text is that, Simon was curious about Jesus, and that's probably why he invited Jesus into his home, to know more about Jesus.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도 묻는다면,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답합니다.

마가복음 12:30~31 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 말씀하고, 이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11~12 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나타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며, 무엇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도록 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봄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의 구체적인 모습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 예수님께 다가가는 한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인상은,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가운데, 그를 좀 더 알기 위해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And verse 36~37 tell us that they were reclining at the table when they had the meal.

When it says they were "reclining", this means (as we saw from the picture in the children's talk), each person would lie on their side, facing the table, with the body and feet angling away from the table.

In today's culture, reclining like that while eating may be considered rude. But in Jesus time, reclining was the normal position for eating a meal on a special occasion.

This means, it is likely that, the Pharisee was throwing a party and they were having a festive banquet kind of meal. And when you have an event like that, it becomes a public event that attracts many crowds. And we accordingly see an outsider, a woman approaching Jesus.

It's also interesting how Luke describes this woman in verse 37. He writes, "There was a woman in the city who was a sinner." Her sin is not specified. Some commentators believe she could be a prostitute, but it is not certain. But the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when Luke describes her as a "sinner" her sin was quite serious enough to gain a reputation in the town. And this is why her presence was causing great discomfort for Simon, as we can see in verse 39.

As this woman, approaches Jesus, what's amazing to see from the passage, is the level of thankfulness, humility and devotion that are revealed through her actions.

Luke describes the woman's actions in great detail, where every move she makes is presented. So, in verse 38, we see her actions of weeping, wiping, kissing and anointing are highlighted. And all these actions well reveals her devotion, humility and gratitude towards Jesus.

집에서 식사할 때, 36~37 절을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원래는 비스듬히 “기대다/눕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시몬이 비스듬히 누워 식사하는 동안, 얼굴은 식탁을 향하고 몸과 다리는 식탁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특히 한국 문화에서) 식사를 누워서 한다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한 날이나 잔치 때 이런 자세로 식사가 행해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식사 자리는, 하나의 연회나 잔치와 같은 자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잔치는 공공 행사 와도 같기에 외부인들이 쉽게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한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는 37 절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누가 이 여인에 대해 묘사하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37 절에서 묘사하기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몇 주석가들은 아마도 그녀가 매춘부였을 것이 다 추측합니다. 여하튼 그녀의 죄가 무엇이든 간에, 여기에서 요점은 온 동네가 그녀의 죄에 대해 알 정도로, 그녀는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39 절에서 보듯이, 그녀가 식사 자리에 참석함이 시몬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드러나는 놀라운 점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감사와, 겸손과 헌신의 정도입니다.

우리가 38 절을 보면 '누가'는 이 여인 하나하나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이 구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녀의 행동은 “울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헌신과 겸손 그리고 감사함을 나타내는 행동임을 보게 됩니다.

So, when Luke first writes that she was "weeping",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word "weeping" is that, the Greek term used to describe her weeping is also used to describe rain showers. This means as she weeps, she wasn't shedding a few tears, but she was sobbing like a rain shower! So, this really shows the great level of gratitude and appreciation that she was feeling towards Jesus.

And continue to see her appreciation towards Jesus in her following actions, where she wiped and kissed Jesus' feet.

Now, when Luke says, she wiped Jesus' feet. She wasn't simply wiping Jesus' feet to wipe off the tears. But we can have a deeper meaning of her action, when we understand the cultural background of that time. In Jesus' time, when a guest visits your place, the host would normally provide the service of washing the feet of the guest. This was mainly because, the footpath was muddy and dusty (they didn't have a nice concrete footpath like we have now), and this meant their feet would quickly become dirty, as they were especially wearing open shoes like sandals.

In light of this cultural background, the fact that she wiped and kissed Jesus' feet well reveals her great humility. This is because, in Jesus' time, the feet were considered the most shameful parts of the body. And therefore, it was usually the duty of the slaves to wash the feet of the guest. One interesting finding was that, there was a hierarchy or rank among the slaves, and washing the feet was the responsibility of the lowest slave. And this is why, when Jesus was trying to wash the feet of his disciples in John chapter 13, Peter strongly refused Jesus to wash his feet.

So, as she comes before Jesus, weeping, and wiping the feet of Jesus. This reveals her great humility (her lowly position) before Jesus.

먼저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가 “울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의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이,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표현할 때 또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울음은, 눈물 몇 방울만 찔끔 흘리고 끝난 게 아닌, 소나기와 같이 쏟아지는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녀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이런 그녀의 마음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통해 계속 드러납니다. 누가는 말하기를, 그녀가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할 때, 이 행동을 그저 발 위에 떨어진 눈물을 닦는 행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시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행동의 좀 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그 손님의 발을 씻는 풍습이 있었다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에는 흙먼지가 많았고, 사람들은 발이 노출된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에 발이 쉽게 더러워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씻기고, 그의 발의 입 맞추었다는 행동은, 그녀의 겸손과 낮아짐을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는 발을 몸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부위로 여겼고 그래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서열에 있는 노예가 손님의 발을 씻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요한복음 13 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 베드로가 이를 극구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녀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And when she kissed the feet of Jesus, this also shows her affection and gratitude towards Jesus... This is because the Greek verb used for kiss here, is more intense form of the verb that was used to describe the kiss of the father, at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So, if you look at Luke 15:20 for example, as the lost son, returns to the father, the father embraces and kisses his son with great joy. And when Luke tells us that this woman "kissed" the feet of Jesus, more intense form of the verb was used to describe this kiss. This means the woman is kissing the feet of Jesus, with greater joy than finding the lost son.

And we further see that, her affection and gratitude towards Jesus, also lead to great material dedication. So, at the end of verse 38, Luke says she anointed Jesus' feet with the ointment. And from Mark 14, which describes a similar incident, we learn that the jar of ointment is worth more than 300 denarii. Considering that, a labourer's daily wage was 1 denarii, and this means, the ointment is worth more than 300 days of wage.

So, here, through her actions of weeping, wiping, kissing and anointing, we see good examples of what it means to love Jesus. And it is about humbly committing oneself to Him, with great joy and gratitude.

• The question of "how."

Now, the important question here is... as we see the practical pictures of loving Jesus, what led her to love Jesus in such a way? How can we love and dedicate our life to him like the woman did?

We se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rough the illustration that Jesus uses. And through this illustration, Jesus makes it very clear that, it is in response to God's forgiving grace that she was able to love Jesus.

또한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다고 말할 때, 이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애정과 감사한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누가복음 15:20 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한 입맞춤보다 더 격렬한 입맞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녀의 입맞춤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의 입맞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또한 큰 물질적인 헌신으로도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38 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기를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 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을 보게 되고, 거기서 옥합에 담긴 향유의 가치는 삼백 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씀합니다(막 14:5).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노동자의 300 일 치 품삯보다 더 비싼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이는 낮아짐과 겸손함, 그리고 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예수님께 헌신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하게 하였는가?

그러면 여기 다음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볼 때, 무엇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하도록 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의 답을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From verse 41 Jesus brings the story of two debto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debtors is the amount of debt they have. So Jesus says, one had a debt of 500 denarii and the other person had 50 denarii. I have mentioned that one denarius worth a labourer's daily wage. So 500 denarii would roughly equal to 1 and half years of wage, and 50 denarii would worth one and half month. And through this comparison, Jesus is making the clear point that, the larger the debt is, the larger the gratitude and love that emerges in the response.

So, through this illustration, Jesus is telling us that, the larger the debt that is forgiven, the larger the gratitude and love that emerges in the response.

The most common debts that people have in today's society are perhaps, mortgage and car loan. People have a few hundred thousand dollars of debt as their mortgage, and 20~30 thousand dollars of debt as a car loan. And you would be in greater joy and gratitude if someone paid off your mortgage than your car loan because it is a far greater debt!

And this point becomes more evident through the comparison that Jesus makes between the Pharisee and the woman. So, in verse 39, by describing the woman as a sinner, we can see Simon drawing a line between himself and her. (He is saying like, I am not like that sinner!). And perhaps, just like other Pharisees at that time, he believed that, it is through one's hard work and effort that a person can be saved and stand holy before God. And since a person is saved by the work, he didn't see the need for God's grace that saves a sinner according to his unconditional love.

Whereas we see a woman, who realizes she is a great sinner before God, and how helpless she is before the problem of sin. And therefore, she runs to Jesus, who alone is able to save her, in his rich mercy and grace. And as she enjoys this amazing grace for unworthy sinners, this as a result, lead her to a greater commitment and love towards God!

그래서 41 절부터 예수님의 예화에 두 명의 빚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그들이 가진 빚의 액수입니다.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이라는 큰 빚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50 데나리온의 상대적으로 작은 빚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임을 감안할 때, 500 데나리온은 1 년 반 정도를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액수였고, 50 데나리온은 한 달 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큰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작은 빚을 탕감 받은 사람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입니다.

우리가 아주 현실적이면서 사소한 예로 생각해 보더라도...현 호주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진 가장 흔한 빚은 주택 융자와 자동차 융자일 것입니다. 보통은 주택 융자로 몇십만 불의 빚이 있고, 자동차 융자로 몇만 불의 빚을 진 체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면, 몇만 불의 자동차 융자를 탕감받은 것 보다, 몇십만 불의 주택 융자를 탕감받는 것이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39 절에서 보듯이, 시몬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 규정하면 자기 자신은 이 죄인과 같지 않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것이라 믿었을 것이고, 그런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그의 마음속에는, 조건 없이, 거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죄 앞에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며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았고, 그녀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결국 이런 은혜는 더 큰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is becomes very visible as Jesus draws a sharp comparison between the woman and the Pharisee. From verse 44 to 46, we can see Jesus is making this comparison, where he say...
 While the Pharisee gave no water for Jesus' feet, she has wet and wiped Jesus' feet.
 While the Pharisee gave no kiss, she gave her kiss to Jesus' feet.
 While the Pharisee did not anoint Jesus with the oil, she anointed Jesus with the oil!

So again, we see a simple yet fundamental principle of Christian life: the more we realize God's loving grace, the more it will lead us into a greater commitment and love.

Too often, we understand our Christian work and commitment as a means to an end, and we understand it as a way to achieve our merit. But through God's Word, we clearly see that, our work and commitment is the result, not the means. In other words, we don't do our Christian work as a mean to achieve salvation, but it is a result, it is a natural fruit of God's grace.

So, if your life is not showing any Christian commitment, it is not simply a matter of your lack of determination and plan. But it is more profoundly about, whether you are in God's grace or not. So, if you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your Christian life being lack of commitment and love. I encourage you to come and see God's grace, which is revealed through Christ for unworthy sinners. And it is this grace that transforms us, and leads us to bear the fruit.

Today's passage also highlights that it is only through Jesus we can enjoy God's forgiving grace!

그래서 이런 은혜의 차이가 헌신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보게 됩니다. 44~46 절에서 말씀하듯,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며,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45 절).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46 절).

결국 우리는 여기서 간결하면서도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 은혜는 우리를 사랑의 헌신으로 인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의 공로를 세우며,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삶의 원리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수단’이 아닌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말인즉,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이 나타나고 있다 없다고 한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지나, 계획이 결여된 문제가 아닌, 좀 더 근본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어떤 헌신이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인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이런 은혜는 우리가 사랑하며 헌신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If we look at verse 48 to 49, when Jesus says to the woman that "your sins are forgiven", this really shocked the people around the table. So they say in verse 49 that,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They were like saying... how is it that he can forgive the sins of people?). And they raised the question because they knew that only God could forgive the sins of the people. So, when Jesus says, "Your sins are forgiven", it was like saying, "I can forgive sins because I am God."

This reveals the divine nature of Jesus, who alone has the authority to forgive sin. And today's passage also reminds us, how to receive this forgiveness. If you look at verse 50, Jesus says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We learn that it is on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ho humbled himself on the cross to pay the penalty of our sins, and yet risen in glory, that we can receive pardon for our sins.

And today's passage also highlights one important aspect of this forgiveness. When Jesus says in verse 48 that, your sins are forgiven. The Greek Word for "forgiven" is in the perfect tense. This means forgiveness is an act that has already taken place in the past, with continuing validity into the future. In other words, this indicates a permanent state of forgiveness, where her past, present and future sins are forgiven!

What an amazing grace this is! Despite our weakness and our ongoing sin, our sins are wholly forgiven, and we can stand before our Holy God, holy and blameless!

And this, of course, does not mean that, we can continue to indulge in our sin. Some people think that, since all my sins are forgiven, I can now live whatever I want, and they continue to indulge in their sin. So, they understand God's forgiving grace as having a licence to sin. But we cannot say this is the proper way of responding to God's grace. When we truly realize that our sins are wholly forgiven, and we can stand before God holy and blameless despite our ongoing weakness and sin. This will humble us! We will be greatly humbled before His grace and grace will transform our heart to pursue God's will and His holiness!

우리가 48~49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그들은 49 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런 예수님의 발언이 이들에게 충격이 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함은 마치, 내가 하나님이기에 너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는 죄 사할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50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낮아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48 절에서 이 “죄 사함” 받음의 중요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48 절에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즉 죄 용서받음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행위이며 미래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영구적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됨이!

이런 죄 용서받음이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몇 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죄 용서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며,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는 삶을 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 **Defining and understanding God's love**

As we come to the conclusion of today's message. The question for all of us here is... have we experienced this love of God that is in Jesus?

When we try to understand and define God's love, the problem we face is...we often understand according to our own desire and greed: We often says... I know God loves me, when he allows me to have a good and easy life. I know God loves me when I have a good job and make good money.

But through today's passage, we see the profound way of God's loving. And that is Christ came for the sinners and by forgiving the sins of the unworthy sinners through Christ, God has indeed revealed his amazing love and grace!

So, if you yet, do not know and experienced God's loving grace, I invite you to come and see what Christ has done for you and me, and abide in His love. And when we abide in His love, we can commit our lives to loving God and others.

Just quickly share my personal reflection on today's passage... I was reading through 1 John 4, in my morning devotion, and I was struck by verse 12. Verse 12 says that God is not visible, but his presence is made visible when we love each other.

This passage really talks about our duty, our responsibility to love one another. Then the dilemma here for me was, how can I love another while my heart is full of greed, jealousy and selfishness? We are so used to love superficially, and is it even possible to genuinely love others?

- **하나님 사랑의 정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이 사랑을 누리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정의하려 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실수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정의하려 함에 있습니다...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쉽고 편한 삶을 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에게 좋은 직업을 주시고, 많은 돈을 벌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그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셔서 저와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QT 시간에 요한 1 서를 읽던 중 4:12 절 말씀이 큰 도전과 책망이 되었습니다. 12 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막중한 의무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무관심과 시기와 욕심과, 조급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며 사랑하는 척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And the answer to this dilemma from today's passage. It is impossible for us to love God and others with our own accord and will. But we can only love others, when we abide in His love. As we abide in his love, we can accordingly imitate his love.

So again, I courage you to see and enjoy God's love, which is found in God's forgiving grace. And accordingly, commit our lives to loving God and others with humble, grateful and joyful hearts like the woman in today's passage.

이런 딜레마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이, 감사함과, 겸손함,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